



## 01

## 제품

- 모기 성충 구제를 목적으로 한 제품으로 모기향은 연소 시의 열, 매트 전자모기향과 액체 전자모기향은 전용 용기의 전기 발열체에서 나오는 열, 팬식 모기 퇴치기는 송풍이나 원심력으로 살충 성분을 공간에 휘발시킨다.
- 살충 성분은 피레스로이드제로 액체 전자모기향은 용제로 등유를 함유하는 유성 제품과 글리콜에테르류를 함유하는 수성 제품이 있다.

## 02

## 초기대응 포인트



## 경구 노출

- 토하게 하지 말고 입안의 물질을 제거하고 입을 행군다.

## 즉시 진료

- 구역질, 구토, 복통,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
- 모기향, 매트 전자모기향을 삼켜 목에 걸린 기미가 있는 경우
- 불붙인 모기향, 전류가 흐르는 매트 전자모기향이나 액체 전자모기향을 입에 넣어 화상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

## 경과 관찰

- 핏거나 한 모금 마신 정도로 증상이 없는 경우



## 눈에 들어간 경우

-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여, 즉시 세안한다.

## 즉시 진료

- 눈 뜨기 곤란한 경우
- 눈 씻기가 어려운 경우
- 콘택트렌즈가 빠지지 않는 경우

## 만약을 위한 진료

- 세안 후에도 통증, 충혈 등이 있는 경우





## 피부 노출

- 비누를 사용하여 충분히 씻는다.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부의 감각 이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.
- 피부의 감각 이상에 대하여 비타민 E를 함유하는 연고제나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한 식물성 기름을 깨끗이 씻은 후 최대한 빨리 바른다.

### 만약을 위한 진료

- 경련 등의 전신증상이 있는 경우
- 불불인 모기향, 전류가 흐르는 매트 전자모기향, 액체 모기향을 만져서 화상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

### 경과 관찰

- 부착 부위에 따끔한 느낌 등의 감각 이상만 있는 경우



## 흡입한 경우

### 즉시 진료

- 목 통증, 기침, 호흡곤란, 구역질, 구토, 두통 등이 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

### 만약을 위한 진료

- 천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 
(발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)

# 03

## 증상



## 경구

- 목 통증, 구토, 설사, 복통 등. 대량 섭취는 흥분, 경련, 혼수, 의식장애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.
- 유성 액체 전자모기향을 잘못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.



## 눈

- 자극감, 통증, 충혈, 눈물 흘림 등



## 피부

- 피레스로이드에 의한 피부의 감각 이상(작열감, 가려움), 발적, 통증, 발진 등. 감각 이상은 일반적으로 24시간 정도면 좋아진다.
- 유성 액체 전자모기향에 장시간 접촉한 경우는 2~3도의 화학 손상이 될 수도 있다.



## 흡입

- 목 및 코 자극, 기침, 숨쉬기 힘들, 구역질, 구토, 두통 등
- 천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발작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.

# 04

## 독성

형태적으로 대량 섭취하기는 어렵고 피레스로이드에 의해 심각하게 중독이 될 가능성은 작지만, 유성의 액체 전자모기향에서는 잘못 삼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.

### 피레스로이드제

독성치는 성분에 따라 다르며 사람에 대한 중독량은 명확하지 않다.

### 등유

경구 노출의 경우, 오연하면 1mL 이하로도 심각한 화학성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. 오연한게 아니라면 잘못 삼킨 정도(체중 1kg당 1~2mL 미만)로 중추신경의 억제에 의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.



## 경구

[금기] 토하게 해서는 안 된다.

▶ 이유: 피레스로이드는 경련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.

또 유성 액체 전자모기향을 잘못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.

- 1) 제거 | 입안에 남아있는 것을 뱉게 한다. 소아나 고령자의 경우는 입안을 확인하여 제거하고, 닦아낸다.
- 2) 행굼 | 입을 행구고 가글한다. 가글할 수 없는 경우는 젖은 거즈로 닦아낸다.
- 3) 수분섭취 | 유성 액체 전자모기향을 마신 경우는 적극적인 수분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. 역지로 마시게 하여 구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



## 눈

-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고, 즉시 물로 씻는다.
-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, 쉽게 뺄 수 있으면 뺀다.



## 피부

- 1) 제거 | 피부에 부착된 것을 제거하고 닦아낸다. 부착된 의복은 벗는다.
- 2) 세척 | 비누를 사용하여 충분히 물로 씻는다.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부의 감각 이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.
- 3) 도포 | 비타민 E를 함유한 연고제 및 식물성 기름(해바라기유, 면실유, 홍화유, 쌀기름 등)의 도포, 피부의 감각 이상이 있을 시 세정 후 가능한 빨리 바른다.



## 흡입

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한다. 실내를 환기한다.

## 피레스로이드제

[흡수] 소화관에서 빠르게 흡수된다.

[대사] 주로 간에서 가수분해, 산화된다.

[배설] 주로 소변으로 배설된다.

## 등유

[흡수] 소화관의 흡수는 극히 적다.



## 생활화학제품 응급대처 가이드북 I

※ 증상이 보인다면 가까운 병원을 내원해주세요.